



보물 제321호 '지정 4년명 청동은입사 항원'



삼국시대 '금동여래입상'

국보 제 209호 '보현인석탑'



국보 제212호 '수능엄경'

'소조 나한상'



조선 후기 '석가여래설법도'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 권 23, 24'

# 역사와 전통에 탄성

'동국대 건학 100주년 특별전 國寶展' 열리던 날



동국대 '국보전' 이 5월 2일 개막됐다. 사진 왼쪽부터 동국대 정우택 박물관장, 홍기삼 총장, 춘광 천태종 감사원장, 조용길 불교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증문에서 언덕길 우측에 위치한 2층짜리 흰 건물. 바로 동국대 박물관이다. 평소에는 학생들조차 여기가 박물관이구나 하며 그 앞을 지나다니는 건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100주년을 맞아 축제가 한창중인 지금은 학생들의 눈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용현사 영산회상도가 박물관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것도 볼거리지만 대학 박물관 가운데서는 드물게 국보급 유물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 학계 등에 박물관 소장품의 가치가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열리는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특별전 國寶展'에는 동국대가 소장하고 있던 국보 3점과 보물 22점 등 25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처음으로 일반인에 공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화재는 국보 제 212호 '대불 정여래입상수능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 또는 '수능엄경'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당나라의 반자밀제(嚴刺密帝)가 번역하고 계환(戒環) 스님이 해설한 것을 세조 8년(1462)에 10권 10책으로 간행한 것으로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한 이후 목판으로 찍어낸 판본이 완전하게 남아 전해지는 유일한 서적이다.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에서 최초로 간행한 한글 해설판으로 판권 제도와 글씨를 대자·중자·소자로 구분하여 쓰는 방법 등은 뒤에 간행되는 국역판의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용현사 영산회상도로 애워싸인 동국대박물관

단 당했던 것을 찾아 동국대 박물관으로 옮겨 놓은 불운의 문화재다. 원래는 2점이 한조를 이루는 백자였지만 도난을 막으려다 한 점은 파손됐고 더 이상의 파손을 막기 위해 화엄사에서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했다. 조선 성종 20년(1489)에 만들어진 청화백자 항아리로 소나무와 대나무를 그려져 있으며 조선 전기 도자사 연구의 표준이 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조선 정조대왕이 직접 그린 보물 제743호 '정조대왕영필파초도(正祖大王筆芭蕉圖)', 보물 제741호 '민애대왕석탑사리호(愍哀大王石塔舍利壺)', 보물 제321호 '지정4년명고려청동무은항로(正四年銘高麗靑銅鑊銀香爐)', 삼국시대 '금동 여래 입상', 조선 후기 '소조나한상', '실상사 동종', 조선 후기 '석가여래설법도' 등도 관람객을 사로잡고 있다.

동국대 도서관에서 소장해왔던 전적류도 다양하게 전시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국문활자본인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釋譜詳)



국보 제176호 청화백자<홍치명>송죽문호'



보물 제471호 민애대왕석탑사리호'

## 국보 보물 25점... 6월 9일까지 전시 능엄경, 보현인석탑 등 일반인에 첫 공개 예술·학문적 가치 높아 학계 비상한 관심 박물관 에워싼 영산회상도 눈길 사로잡아



실상사 동종을 보고있는 일반 관람객



보물 제743호 '정조대왕영필파초도'

보물 제409호 '영탑사 금동삼존불'



보물 제740호 '김지은비삼선계경'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이고 편안한 잠자리**

배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전신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납니다.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목결이, 팔찌**: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안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억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상쾌한속면 신비의은행석**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생명의 빛/생명의 기!

북한에서 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붓어를 넣으면 붓어는 배를 뒤집고 활력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붓어는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으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정주도 계속 판매합니다

금강타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입금계좌번호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아름,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면, 건강체질로 바뀌는 발효원액 정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는지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호소)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피로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